

수도권 영역 확장...광주은행 제 2의 도약

올 15개 점포 개점 총 19곳 영업
8곳 6개월만에 손익분기점 넘어서
1년새 영업자산 1조5000억 증가
소규모 점포·찾아가는 고객관리

“위기를 기회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해 민영화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늘리고 영업망을 확대하며 수도권 공략을 통한 '제2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뱅킹, 무인점포 등장 등으로 격변에 직면한 은행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광주은행의 서울 및 수도권 영업점은 서울영업부 등 4개(강남, 양재, 여의도)였다. 하지만 김한 행장 취임 이후 올 3월 삼성동지점 개점을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그 영업망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11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올해에만 총 15개 지점을 오픈하면서 영업점이 총 19개로 늘었으며,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소매영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점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만으로 운영하고, 건물 1층 지점을 고집하지 않고 2층 이상에 기반을 두는 전략으로 영업망을 확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수도권 영업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업무추진부를 신설해 수도권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및 기획으로 수도권 영업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여명의 대출담당자들을 고용해 발로 뛰며 직접 고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시중은행들과 차별화 된 영업전략을 도입해 수도권 고객들에게 감동영업에 나서고 있다.



김한 광주은행장

다. 대출모집인들은 대부분 우량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영업만으로 올 연말기준 3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수도권에서 영업력 확대를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수도권 영업자산 5조 1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1조 5000억원 상당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논현지점의 경우 개점 6개월 만에 누적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삼성동, 잠실, 논현, 대치동, 방배, 청담, 부평, 청량리 8개 지점은 월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등 광주은행의 수도권 영업은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미래 먹거리 창출은 수도권 공략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산투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는 계정계, 정보계, CRM(고객관계관리), 재무/관리회계 등 은행의 중요 핵심업무를 새로운 IT기술을 반영해 바꾸는 것으로 2016년 11월 시스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광주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에는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광주은행의 전산투자는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다. 광주은행은 핀테크라는 금융 혁신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망과 조직 슬림화,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JB금융그룹은 핀테크에 앞서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 최초로 'JB금융그룹 핀테크 경진대회'를 실시해 양질의 핀테크 기업과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JB금융그룹은 향후 지속적인 핀테크 경진대회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협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금융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한 행장은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어나 소규모 전략점포로 수도권에 진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핀테크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행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몸집이 큰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갖춘 광주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2.07 (+3.83)
-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2)
- ↓ 코스닥 658.08 (-6.00)
- ↑ 환율 (USD) 1181.30원 (+2.00)

한전-18개 기관 에너지 기술개발 MOU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력을 주요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전력 제공>

기준금리 年 1.5% 동결

美 금리 인상 추이 촉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 수준에서 6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되고서 6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러 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다음 주 금리 인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은이 국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여 만에 미국 통화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형사건으로, 신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선 그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로 국내 금융시장

이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中企 우수상품 할인전

11~13일 U대회 체육관

산업통상자원부는 11~13일 광주를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우수상품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전이 열리는 곳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고양 캠펙스, 서울 aT센터,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등이다.

총 371개 중소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할인전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민간 주도 대규모 소평행사인 'K-세일데이(K-Sale Day)'와 연계해 중소기업에는 제품 판매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판매 제품과 할인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k-saledayshow.com 또는 www.kpgshow.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해, 청소년 선도 대상 시상식 개최

보해양조주(주)는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에 앞장선 지역 유망자와 선형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2015보해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김해수 검사장과 보해양조주(주)채원영 사장, 정민호 전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통 김만용 대표이사(가

상)에 선정돼 300만원의 상금과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김 대표는 대상 상금 300만원에 자비 2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예방 선도에 공을 세운 광산경찰서 양동철 경위 등 9명이 분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장려상 7명이 상금 50만원씩을 각각 수여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인인증서 인증, 내년부터 지문 인식

비밀번호 번거로움 없애...센서 장착 스마트폰 가능

전자 금융거래와 상거래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돼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지문 인식으로 대체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방식을 비밀번호 입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문 인식으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KISA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저장하고 나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과 달리 액티브 X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KISA는 내년 1월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부터 비밀번호 없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업체 KG모빌리언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1999년 2월 등장한 공인인증서는 올해 7월 기준 3천341만명(65%)이 사용하는 대표적 인증 수단이다. 그러나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고 영문, 숫자, 특수기호가 섞인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공인인증서 지문 인식은 관련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